

「南北 민간科技 교류推進協」발족

創立 총회 · 현판식...위원장에 權彞赫科總 회장

과학기술자 교류, 한반도 생태계 · 대륙붕 공동연구 추진



◇ 민간차원에서 南北韓간 과학기술교류를 추진키 위한 협의회가 4월 17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政府의 北方정책에 맞추어 民間차원에서의 南北韓과학기술자의 교류와 협력, 自然科學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상호 교환등을 추진할 「南北民間 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가 4월17일 창립총회와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상오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35인으로 구성된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바로 과총회관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사진)

이 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는 민간의 다양한 남북과학기

술교류 욕구를 수렴하고 과학기술분야 對北교류 제의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학계, 연구계 및 유관기관단체 인사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자율적기구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의 대북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사전 검토 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교류창구역역을 담당하고 남북과학기술교류와 협력방안 모색 및 민간대북과학기술교류사업의 전문적 자문과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남북간 과학기술교류를 우방 및 소련, 중국등의

과학기술계를 통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총연맹 및 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토록한다는 방침 아래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科總주최로 오는 6월 고려대에서 열리는 제11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북한과학자를 초청하는등 ▲과학기술자교류를 비롯하여 ▲자연과학공동연구 및 연구결과교환 ▲한반도생태계 및 환경에 관한 공동연구 ▲대륙붕공동개발 연구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는 ▲농산물가공 기술협력 ▲화학 경공업 건설분



야동의 기술협력 ▲기계 전자 유전공학등의 첨단기술이전 ▲첨단산업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에는 ▲남북과학기술

각료회의 개최등 정부간협력으로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동협의회 위원장에 權彝赫科總회장이, 고문에는 鄭根謨과기처장관과 閔寬植科總명예회장·金東一상임고문이, 운영위원회에는 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장등 10명, 사무총장에는 鄭助英科總상임부회장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사무국은 科總내에 두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鄭根謨(과기처 장관)·閔寬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총명예회장)·金東一(과총상임고문)

◇위원장 權彝赫(과총회장)

◇운영위원 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장)·金始中(고려대이과대교수)·李海成(한양대총장)·閔壽泓(인하대공대교수)·吳鳳國(서울대농대교수)·金在洵(대한의학협회장)·金炳源(한국화낙<주>사장)·李景瑞(국제화재해상보험<주>사장)·金美經(이화여대가정과학대학장)·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사무총장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분과위원장·이학부문=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장)·공학부문=李海成(한양대총장)·종합부문=金在洵(대한의학협회장)

◇분과의원·이학부문=安世

熙(연세대교수)·尹能民(서강대교수)·朴炳權(해양연구소장)·盧在植(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안전센터책임연구원)·李相萬(서울대이과대교수)·朴相大(서울대자연과학교수)·공학부문=趙慶國(서울대교수)·徐廷旭(한국전기통신공사부사장)·李哲熙(숭실대교수)·白鎿鉉(고려대교수)·李光魯(서울대교수)·종합부문=金安濟(서울대환경대학원장)·韓仁圭(서울대농과대학장)·朴榮浩(부산수산대교수)·羅逸星(연세대이과대교수)·金塚謙(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金明燮(대한약사회장)·金漢星(대한한의학협회장)·李鍾守(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에 李殷雄 박사

本誌편집위원회 개편

本誌편집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편됐다.

◇위원장 李殷雄(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姜信龜(경향신문부국장) ▲金明子(숙명여대이과대학장) ▲金盤碩(내외경제신문과학기술부장) ▲金一赫(중앙대부총장) ▲金軫鎬(보건신문사부사장) ▲金學銖(서강대문과대신문방송학과교수) ▲朴星來(한국외국어대교수) ▲白彰鉉(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 ▲李光榮(한국일보편집위원) ▲吳奉煥(국민일보생활과학부장) ▲李龍水(동아일보과학부장)

▲崔先錄(서울신문과학부장) ▲崔靖民(중앙경제신문CTS추진본부국장) ▲玄源福(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在歐科聯 회장에

박춘식 在獨과협 회장 선출

지난 2월말 英國 런던에서 열린 在歐한국과학 기술자연학회 임원회의에서 박춘식 在獨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이 금년도 在歐科聯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밖에도 간사장엔 송선달씨, 총무에는 김태환씨, 재무에 장길홍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주소도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Dr. Park Choon-Sik, President
KSEAE
Kyffhauser Str. 16
1000 Berlin 30,
W. Germany

科總人事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裴鍾斗(관리부장) ▲총무부장직무대리 李旭桓(총무과장) ▲관리부장대우 李鍾安(진흥과장) ▲편집과장 權光仁(편집과장보) ▲총무과장보 李昌圭 ▲진흥과장보 權五應 ▲진흥과장보 元老과학기술자문단사무국 겸직 金正會 ▲영선과장보 嚴明先 <4월1일자> ▲기획과장 金一中 <신규·4월11일자>

“科學技術은 나라의 國運 좌우”

盧泰愚 대통령, 과학기술有功者 초청 다과회서 강조

基礎科學 육성 · 源泉技術 축적에 힘써야



◇盧泰愚 대통령이 4월24일 하오 각종 과학기술관련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

盧泰愚 대통령은 4월24일 하오 과학의 날 수상자와 각종 과학 기술관련 수상자 1백24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

盧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날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國力과 國運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날이 갈수록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바로 과학기술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盧 대통령은 또 『최근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한데 뭉치면

“歷史 발전의 求心體 召命의식” 강조

權 과총회장, 제23회 과학의 날 기념식서

제23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4월21일 상오 大德 한국과학기술대학 강당에서 鄭根謨 과학기술처 장관, 權 彞赫 과총회장, 國會 柳 峻相 경과 위원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등 과학기술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權 彞赫 과총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2천년대에

경제적難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盧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인력 확보와 과학교육 강화 특별대책 강구, 産·學·研간의 유기적인 협조,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기초과학의 육성과 원천기술의 소화·축적등을 정부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했다.

이르러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先進福祉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도약만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날로 어려워만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과학기술시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회장은 이와함께 『과학기술인들도 과학기술위주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살길은 오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학회 학술활동을 더욱 진작시키고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백만 과학기술인들 스스로가 역사발전의 구심체라는 각오의식을 갖자』고 당부했다.

한편 鄭根謨 과기처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과거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중남미개발국들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체의 좌절의 늪으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와 있



◇大德 科技大강연장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 전경.
(왼쪽은 기념사를 낭독하는 권과총회장)

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한계성과 임금인상에 따르는 국제경쟁력의 약화, 기술보호주의로 인한 격심한 통상마찰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끝없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未知의 세계」를 열어 줄수 있다』고 말했다.

鄭장관은 이어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러한 국가적과제를 해결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에 주력하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 ▲국제협력활동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경제·사회적지위 격상 문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鄭장관은 끝으로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정치발전과 문화창달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천년대가 되면 과학기술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과학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과학한국」을 이룩하는데 가일층 매진해 줄



◇기념식후 축하연에서 國會 柳峻相경과위원장, 권과총회장, 鄭과기처장관, 朴水觀씨 (기능상수상자), 國會 金長淑의원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과학기술계뉴스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國會 柳峻相경과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지원을 통해 國會가 예산정책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 科學賞에 高允錫 · 尹能民교수

● 技術賞에는 李膺孝사장

● 技能賞 朴水觀씨, 振興賞 朴星來교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이 있은후 科技大강당 옆 잔디밭에서는 이날 대한민국 과학기술상과 과학기술진흥 유공포상을 받은 수상자와 가족 등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鄭根謨장관, 權彝赫회장, 國會 柳峻相경과위원장 · 金長淑의원등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23번째로 맞는 「과학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날의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년도 大韓民國과학기술상 (大統領賞 상금 5백만원) 4개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과학기술진흥유공 포상이 있었는데 영예의 科學賞은 高允錫교수(63·서울대 자연대)와 尹能民교수(63·서강대 이공대)가, 기술상은 李膺孝씨(63·한국데이터통신<주>사장), 기능상은 朴水觀씨(35·갑우정밀공업사기술개발팀장), 그리고 진흥상에는 朴星來교수(50·한국외국어대)가 수상했다.

과학상 수상자인 高允錫교수

는 25년간 서울대교수로 재직하면서 核물리학연구로 국내 물리학의 발전 및 기초과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尹能民교수는 노벨賞수상자인 Brown교수와 함께 수소 화물에 의한 선택환원의 연구를 개발,

여하였음은 물론 전통과학기술과 현대과학기술의 연계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에 지대한 업적을 쌓았다.

이밖에는 과학기술진흥 유공자로 金光浩삼성전자(주) 대표이사사장이 금탑산업훈장, 趙宣彙서울대교수등 3명이 국민훈장모란장, 張學淳삼양정수공업(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李承務연세대교수등 3명이 국민훈장동백장, 黃鶴九건설화학공업(주) 사장등 3명이 동탑산업훈장, 河完植서울대교수등

발전시켜 유기합성분야의 유용한 활용실적을 쌓은 공로로



◇ 鄭根謨과기처장관이 大韓民國과학기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것.

기술상의 李膺孝사장은 국내 전기통신산업의 기반구조기틀을 마련하였고 국내정보통신개발 및 이의 대중화유도에 기여한 공로를, 기능상의 朴水觀씨는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컬러TV 전자관 공장자동화설비 20여종을 국산화하여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기능인 양성지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진흥상의 朴星來교수는 20여년간 과학기술풍토조성에 크게 기

5명이 국민훈장목련장, 李宅烈한국전자(주) 종합연구소장등 3명이 철탑산업훈장, 權純錫동아대교수등 7명이 국민훈장석류장, 羅炳來(주)대원 대표이사등 4명이 석탑산업훈장, 李龍水동아일보사과학부장등 4명이 국민포장, 金正優(주) 종근당이사가 산업포장, 李相根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등 11명이 대통령표창, 李健과총출판부장등 5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자세한 공적사항은 본문참조)

4월 「科學의 달」行事푸짐

과학강연회, 생활과학강좌등 개최

4월 科學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과학기술관련행사들이 관련부처를 비롯 교육기관, 연구소등 유관기관 주관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4월21일 제23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科總주관으로 大德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대학강당에서 열려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시상 및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게 되며 科總산하 63개 회원단체들도 4월 한달동안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각 시도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과학강연회, 생활과학강좌등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높이기위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히 펼쳐진다.

科學의 달 주요행사계획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기간 및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강연회 ▲'90 Advanced & Future Micro Electronics Workshop(3.30~3.1,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천문우주강연회 • 장소: 大田고교강당(4.18, 한국기계연구소) ▲복합재료 춘계논문발표회 (4.10, 한국기계연구소) ▲90년도 기본연구수행 과제중 30개 과제 발표(4.15, 한국기계연구소) ▲용접기술 세미나(4.20, 한국기계연구소) ▲화합물반도체 관련세미나(4.15, 한국표준연구소)

◇ 연구소 견학, 전시 ▲大德연구단지 견학(3.1~5.31, 大德단지



◇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각종 과학행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관리소) ▲연구소내 연구전시물 개발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시스템공학센터등 출연연구소 (4.1~30, 출연연구소) ▲상설전시실운영 • 장소: 국립과학관 전시실 (4.17~22, 국립과학관) ▲천체관측의 밤 • 장소: 大田중·고교운동장(4.18,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사진전 ○ 기상현상사진전시 • 장소: 남산시립도서관(4.16~22, 중앙기상대) .

◇ 교육, 훈련 ▲압력표준기측정 전문교육 (4.9~11, 한국표준연구소) ▲진동측정기술교육(4.16~21, *) ▲시간, 주파수측정기술교육(4.17~20, *) ▲유량측정기술교육(4.23~28, *) ▲비파괴시험기술교육(4.26~27, *)

◇ 과학실습 및 전시회 개최 ▲이동과학차순회계몽 ○국민학교순회활동—경북달성군4개교, 경기용진군4개교, 충남태안군5개교, 경남의창군4개교, 전남광양군4개교, 충북음성군4개교(4.9~27,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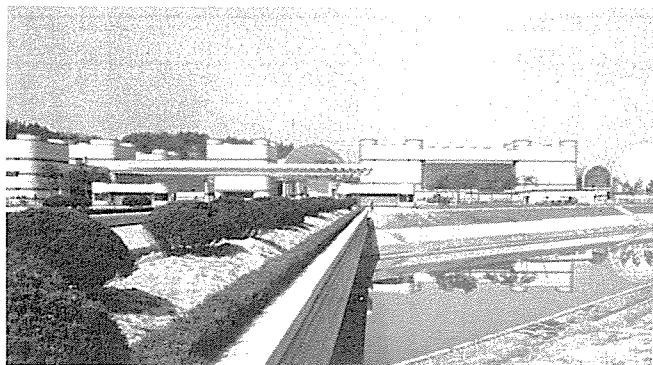
○모형항공기 ○과학상자 ○라디오조립 ○모형자동차 ○과학실험 ○산수/수학경시 ○과학독후감 ○과학상상그림 ○미래

과학글짓기(4.1~30,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미래과학독후감모집 ○과학책독후감쓰기 (3.1~5.20,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과학영화상영 ○혜성·타임캡슐 ○대체에너지 ○신비의 우주세계 ○환상의 나라 ○레오나르도다빈치—의학, 과학, 예술 ○과학시대에 산다 ○기술은 나라의 힘 ○폐기물의 재활용 ○환경보존 • 장소: 국립과학관(4.1~29, 국립과학관) ▲원자력안전강연 및 비디오상영 • 장소: 원자력안전기술원(4.27~28,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유공자 사기진작 ▲제23회 과학의 날 기념식 • 장소: 大田한국과학기술대학(4.2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공무원 및 과학기술진흥 유공자포상 ○대한민국과학기술상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4.2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1회 우수과학어린이표창 ○과학기술처장관상: 6,354명 예상(4.21, 과학기술처) ▲장학금수여 ○충북과학고교생5명(4.20, 동력자원연구소)

國立科學館직제 대폭개편

國立中央科學館으로 개칭...人員도 증원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둔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大德종합科學館 전경.

國立科學館이 國立中央科學館으로 개칭된다.

국립과학관은 4월17일 지난 85년 착공한 大德 綜合과학관이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개편을 앞두고 직원을 45명 증원(총144명)하는등 직제를 대폭 확대개편했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현 국립과학관의 명칭을 개칭하고 종합전시연구실과 과학기술사연구실, 자연사연구실을 신설, 각 분야에 걸친 전시기법의 개발과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분야인 과학기술사연구등 조사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것. 또한 종로구 외룡동에 위치한 현재의 국립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소속하에 「서울과학관」으로 존속시켜 수도권지역의 科學化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001년까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바닷가에는 해양과학관,

광산지역에 자연사박물관, 공업단지부근에는 산업과학관등 10여개의 과학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민간참여유도를 위한 가칭 「과학관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이 한창인 大德종합과학관은 부지 5만평위에 상설전시관 (2,800평), 특별전시관 (1,140평) 연구관리동(910평), 공작실 및 부대시설(2,564평), 과학교육시설(1,086평)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직경 23m의 돔과 3백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는 천체관과 영화관 및 기타 시청각실도 갖추고 있다.

전시분야는 지구의 생성(우주포함), 인류 및 동·식물들의 변천과정을 알수 있는 자연사분야, 자연과학 및 기술 발달과정을 소개하는 자연기술사분야, 지구과학·수학·물리·화학·생물등 기초과학의 원리를 소개

하는 자연과학분야, 에너지이용·기계 교통과 수송·정보등 주요기술을 소개하는 기술분야 등 4개분야에서 총5천8백7점의 전시품이 선보이게 된다.

국제 數學 올림피아드

출전학생 최종선발

오는 7월8일부터 12일까지 中國의 北京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할 한국대표 6명을 뽑는 최종선발전이 4월14~15양일간 서울 大,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부산大에서 열렸다.

이번 최종선발전에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이수자 45명 및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수학적 자질이 우수한 학생 1백76명이 출전했다.

실험장비 國産化

標準研, 독도계등 7種

韓國標準연구소(소장 李忠熙)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外率計, 濁度計, 내연기관 종합성능 시험장치, 만능재료시험기, 마이크로파-시험장비, 수질분석기등 7종의 이공계대학 실험실습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표준연구소는 총수요의 93%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공계대학 실험실습장비의 국산화개발사업을 86년도부터 착수, 1백여 국산화대상장비중에서 이미 23개품목을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7개품목을 개발했다.

「한국인체유전자연구회」發足

世界휴먼제놈프로젝트에 동참계획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계획인 人體제놈(Genome) 연구사업에 국내학자들도 동참하기 위한 한국인체 유전자연구회가 4월13일 결성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전공학센터는 국내생명과학자 1백여명을 주축으로 한국제놈연구회를 발족시키고 美·日·英 등 15개국이 추진중인 제놈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제놈프로젝트는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의 집합체인 「제놈」의 정체를 규명해 인체 유전자지도를 완성하여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사람에게 있는 10만여개의 유전자를 찾아내고 30억개의 쌍을 이루고 있는 염기배열을 밝혀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85년 미국에서 처음 논의된후 현재 세계 15개국이 인체유전자연구기구(HUGO)를 만들어 추진중인 이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정식으로 사업이 개시돼 2005년까지 15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약30억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결성대회에서는 고려대 李世永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국내 학계, 연구계, 기업등에서 모두 1백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인체유전자연구회는 우선 올해 1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휴먼제놈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한국측의 연구범위·연구인력·조직·재원마련등 사전조사 작업을 벌일계획이다.

自動制御세미나 開催

電氣協, 5월21일부터

大韓電氣協會(회장 安秉華)는 최근의 산업설비 자동화 및 고도의 정밀화 추세에 따라

自動制御응용에 관한 新技術보급의 일환으로 西獨 ABB社 소속의 金昌德 수석연구원을 초빙하여 「전력전자공학을 이용한 자동제어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총 26시간에 걸쳐 실시될 이 세미나에서는 최신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개발에서부터 전력용 반도체의 특성, Power-Thyristor, Transistors Diode, 자동제어회로, Digital Sytem, Power Rectifier System, Rectifier 의 원리, Thyristor 의 통제전환, Converter, Inverter, Power Regulator 등에 관하여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磁氣浮上열차 開發 本格化

事業團발족...2001년까지 超高速열차 開發

韓國機械연구소는 미래의 첨단교통수단인 磁氣浮上열차 개발을 위해 「자기부상열차사업단 (단장 金燾喆)」을 발족시켜 오는 2001년까지 시속 5백km의 자기부상열차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단은 1단계사업기간인 오는 93년까지 모두 8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大德연구단지 국제과학산업무역박람회장에 설치될 시속 40km(3인승 6량) 수준의 자기부상열차의 제작을 완료하고 자기부상열차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연구와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다. 이어 97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대도시에 적합한 시속 1백km이상의 韓國형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오는 2001년까지는 시속 5백km 수준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하기도 했다.

이 자기부상열차개발사업에는 기계연구소, 전기연구소등 연구기관을 비롯 학계에서 서울대 한양대 충남대 동국대 경북대등이 기업체에서는 대우중공업 효성중공업 금성산전 삼성전자 이화기전 이천전기등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彈性波 탐사기술 開發

動資研 地下深部자원 손쉽게 探査

金, 銀등 지하자원개발과 原子力 핵폐기물 저장, 石材산업, 땅굴탐사등에 크게 기여할 最尖端기술인 彈性波 탐사기술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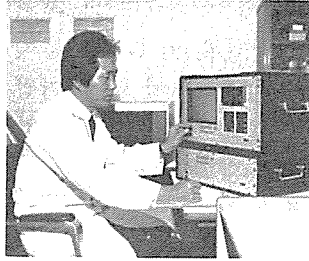
韓國動力資源연구소 탐사개발 연구실 金重烈박사팀은 지하深部の 資源을 손쉽게 탐사, 개발할 수 있는 탄성파탐사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탄성파탐사의 주된 목적은 지층구조단면도를 얻어내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지표면이나 갱내에서 탄성파發生源과 수신기를 설치하여 충격을 줌으로써 탄성파가 발생되어 지하의 지층구조경계면에 반사 혹은 굴절되어 오는 것을 탄성파기록테이프에 수록하여 전산처리함으로써 지층구조단면도가 얻어지는 것.

이제까지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地下深部の 자원들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탄성파탐사기술이 개발되므로써 탄성파탐사의 기초연구는 물론 현장응용기술개발 축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일반 금속탐사, 지하수 및 온천탐사, 건축·토목공사의 지반조사는 물론 原子力 핵폐기물저장 암반조사 및 石材 개발의 개략탐사에 응용될 수 있다.

한편 金重烈박사팀은 이 연구



(金重烈박사)

를 위하여 科技處특정연구과제로 지난87년부터 3년간에 걸쳐 韓·獨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개발된 탄성파발생원인 P빔발생원개발, 특유한 컴퓨터수치 제어장치개발 및 S(s스타)波의 발견이라는 연구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세계 최고권위학회지인 국제물리탐사학회지에 발표, 관심을 모았다.

부소장에 金定德 박사

電子通信研, 人事이동

韓國電子通信연구소(소장 景商鉉)는 4월4일 부소장에 金定德박사(무선통신개발단장)를 승진, 발령하는등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人事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연구단 선임연구원 李元雄 △ 기초기술연구부 연구위원 李一恒 △ 통신시스템 연구단 광전기술부연구위원 長東星 △ 반도체연구단 집적회로개발부 연구위원 朴柱成 △ 정보통신연구단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장 崔陽熙 △ 위성통신기

술본부 위성통신시스템연구부연구위원 金在明 △ 정보기술개발단 기술정보센터장 奇民鎬

과학의 달 심포지움開催

朝鮮日報 創刊70주년기념

朝鮮日報 創刊 70주년 및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움이 4월27일 조선일보 정동별관 7층대강당에서 「과학기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선 朴星來교수(한국의국어대)의 「한국과학기술유산」宋相庸교수(한림대)의 「서양과학기술의도입과 문제점」등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종합토론에서 鄭根謨과기처장관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문화」에 관하여 발표했다.

HDTV개발 本格化

生産기술연구원, 93억投入

生産技術研究院(원장 朴宇熙)은 HDTV 개발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HDTV 전담개발본부인 제1연구개발사업단을 새로 구성했다.

이 제1연구개발사업단은 관련기관과 함께 오는 93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시작품제작계획과 제품설계개발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4월 말까지 이 HDTV 개발에 참여할 완제품 및 부품생산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103개 國策研究과제 수행

KIST, 新物質창출 · 상온핵융합연구등

韓國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올해 수행할 특정연구사업중 國策연구과제가 총 103개과제에 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4월초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보산업, 메카트로닉스등 10개분야 40개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모두 3백9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금년도 정부 특정·국책연구과제중 KIST는 신소재(24억), 정밀화학공정(24억) 원천요소기술(9억2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103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KIST에서 수행할 금년도 국책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사업비(단위 백만원) 및 과제수>

▲정보산업기술분야·초고속 초고집적 GaAs화합물 반도체(170/2)

▲메카트로닉스 기술분야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자동화(CIM)기술(475/10)

▲신소재기술분야(2,381/49)
•자동차고기능화를 위한 신소재(436/10)
•산업전자기기용 첨단부품소재(626/13)
•생체의료용재료(249/7)
•정보산업용 핵심재료(647/9)
•항공기용부품소재항(423/10)

▲생명공학기술분야
•다발성 난치병 퇴치(65/1)

▲정밀화학·공정기술분야

(2,401/20)
•신물질창출연구(1,596/5)
•기능성화학물질(224/2)
•소재공정기술(205/4)
•공업화학공정기술(376/9)

▲신에너지기술분야
•가스터빈개발(100/3)

▲의료·환경·주택기술분야
(902/8)
•수질오염종합관리 신기술外 2건(297/5)

▲원천요소기술분야(924/10)
•극한기술(190/2)
•레이저기술(417/5)
•고온초전도체 기술(260/1)
•상온핵융합연구(57/2)

91년도 月曆요항 발표

天文字宙科學연구소

天文字宙科學연구소(소장 文信行)가 1991년도 月曆요항을 발표했다.

내년은 辛未年, 양의 해로 단국개국 4324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은 52일의 일요일과 20일의 법정공휴일을 합하여 총 공휴일수가 72일이 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과 추석(9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실제공휴일수는 70일이 된다. 이것은 올해의 실제공휴일수 69일보다 하루가 더 많은 것.

그리고 2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2회로, 1월1일 신정연휴(화,

수)가 있고 5월5일 어린이 날(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 다음날도 공휴일이 되며 3일 계속되는 연휴는 9월 21~23일(토, 일, 월) 추석연휴이고, 4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일요일과 연결되어 있는 2월 14~16일(목, 금, 토)의 설날 연휴가 있다.

학생發明品 전시회 開催

입상작은 6월19일부터 展示

韓國발명특허협회는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에 주역이 될 發明의 꿈나무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한 '90 全國학생발명품전시회 개최계획을 확정했다.

초·중·고·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시회는 학생용품분야(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등)와 생활용품분야(일반산업분야 포함)로 구분, 전시된다.

출품작가운데 우수작을 선정, 대상(상금 2백만원)을 비롯 준대상(1백만원), 금·은·동·장려상등을 시상하게 되는데 동상이상의 수상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개인 및 단체 동상이상 수상학교에 대해서도 2백만원 범위내에서 발명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동상이상 수상학생(대학생제외)의 지도교사에게는 해외발명관계 연수 및 견학기회를 갖는 특전이 부여된다.

입상작 전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별관 2층 발명전시관에서 있게 된다.

「韓國科學教育재단」 설립해야”

과학교육계 주장, 94년까지 基金 1천억원 造成

일선 교육계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교육자들이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4월14일 「21세기를 위한 초·중등과학교육진흥대토론회에 즈음한 과학교육자의 견해」를 통해 과학교육 발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되는 선도적 응집력의 형성을 위해 ▲한국과학교육단체연합회창설 ▲국제적수준의 한국과학교육원 설립 ▲한국과학교육재단을 설립, 점진적인 혁신을 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존의 여러 과학교육관계 단체를 규합하여 선도적 응집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학교육 연합회」를 창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수준의 「한국과학교육원」을 설립, 과학교육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교육자료의 집대성은 물론 국제적교류의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적 과학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年1백억원정도의 기금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기존의 과학교육기금 4억원, 한국과학교육학회 기금 7백만원등을 포함하여 오는 94년까지 1천억원의 기금 조성활동을 거국적으로 벌이는 동시에 한국과학교육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입시제도 개선안의 심층적 연구에 대한 지원등을 촉구했다.

發明특허품전시회 開催

80개업체 발명품展示

韓國發明特許協會는 3월23~4월1일 한국종합전시장 별관 전시실에서 發明特許品전시회를 개최했다.

발명의 기업화 알선 및 촉진, 발명에 대한 홍보와 유통증진, 발명인의 사기진작 그리고 발명사상 양양과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 선 80개업체에서 출품한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농수산, 토건, 생활용품분야의 우수발명품이 선보였다.

유라시아 化學會議 열려

31개국서 320편논문 발표

유럽과 아시아지역 화학자들의 정보교류와 연구협력증진을 목적으로한 제2차 유럽·아시아 화학회의가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세계화학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화학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소련, 헝가리, 체코등 유럽·아시아지역 31

개국의 학자 5백여명이 참석, 생체유기화학 전산화학 配位화학 환경화학 천연물화학 유기금속화학 고분자화학 고체 및 용액화학등 9개분야에서 모두 3백20편의 최신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선 특히 노벨상심사위원인 스웨덴의 P O 로드원 박사가 「미래화학에 있어서의 양자화학의 역할」에 대하여, 81년도 노벨화학상수상자인 일본의 후구이겐이치박사가 「산업계를 위한 새로운 창조」를 발표하는등 5편의 특강, 11편의 초청강연과 3백20여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KOEX 科技展 개최일정

4월 · 환경오염방지기기전 (6~10일, 환경보전협회) · 제4회 국제과학, 교육기기전(11~15일, 한국일보사) · 국제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 통신기기 및 로봇전(11~17일, 한국경제신문사) · 서울국제공작기계전(24~30일, 한국공작기계협회) · 서울국제화학플랜트전(25~29, KOEX)

5월 · 제8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10~14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제4회 항공우주심포지움(16~18일, 공군본부) · 제8회 국제 플라스틱·고무·세라믹전시회(23~27일, 한국일보사) · '90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24~28,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우주과학회

韓國宇宙科學會는 4월14일 과학회관에서 금년도 제7차정기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羅逸暉회장 후임에 趙慶哲박사(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를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崔圭弘연세대천문대 기과학과교수·李愚佰천문우주 과학연구소소백산천문대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학술발표에선「정지위성 궤도의 평균궤도요소」등 12편의 최신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白奉基)는 4월 13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1990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보고 및 결산승인에 이어 제15회 고무기술공로상 및 우수報文賞 시상과 창조회원사에 대한 감사패증정이 있었는데 제15회 고무기술공로상은 三共物産(주) 金駿洙전무이사에게, 우수보문상은 「EPDM 고무에 Acrylonitrille 과 4-Chlorosty-

rene의 Graft 共重合」에 관한 논문을 공동발표한 부산대 趙元濟교수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가을총회 석상에서 시상할 제15회 고무기술진보상의 연구과제를 「耐熱 耐오존性이 좋은 低硬度고무」로 선정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연구발표회에선 東亞大 孫晋彦교수의 「인공피혁의 기능성과 발(足)의 화학공학」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금호석유화학(주) 연구소 尹東日선임연구원의 「Ziegler-Natta 촉매를 이용한 BR의 중합에 있어 溶媒의 영향」등 4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韓國太陽에너지學會(회장 朴元勳)는 4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금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초청강연 1편과 13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선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냉축열시스템의 축냉특성의 연구」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한 기존공동주택의 에너지 개수방안에 관한 개발연구」 「태양열과 프레온기체 압축열 복합온수기개발」등 연구논문 13편과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大 Muhammad IQBAL 교수의 「Clear Sky Solar Irradiance」주제로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朴胤成)는 4월4일 철골구조위원회 주관으로 日本 名古屋大學의 多賀直恒교수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多賀直恒교수는 「최근 지진동재해의 상황과 관련되는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동학회는 이에 앞서 3월 31일에는 건축환경위원회 학술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임만택씨(조선대교수)가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경영씨(라미환경미술연구원장)가 「도시경관 형성과 건축의 역할」 김기환씨(부산공업대 조교수)가 「건축색채계획과 도시환경」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大韓韓醫師協會(회장 金漢星)는 한방의료기관의 표시판도에 아직도 「韓醫院」을 「漢醫院」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시달했다.

지난 86년 제129회 임시국회에서 한방의학의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방의학과 관련한 일체의 법정용어를 漢(한수한)자에서 韓(나라한)자로 변경함에 따라 각종 표시판도 시정, 사용토록 시달하였으나 漢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경영과학회

韓國經營科學會(회장 朴淳達)는 4월 9~10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컴퓨터바이러스 예방 및 퇴치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컴퓨터 사용자 및 관련 업계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세현박사가 「컴퓨터범죄」 한국데이터통신(주) 정보통신연구소 장진국연구원이 「컴퓨터바이러스의 종류별 분석」 한국전자출판연구회 이기성이사가 「바이러스 치료법」고려대 박명순박사가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에 대하여 발표했다.

동학회는 또 11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통신 및 컴퓨터 통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에선 「데이터통신, 컴퓨터통신」 「VAN, ISDN」 「LAN」 「PC부산시스템의 설계」 「LANOS」 「LAN 활용방안」 「OSI 7Layer개요」 「OSI상·하위계층 설계」등 주제발표와 실습 및 견학이 있었다.

대한인간공학회

大韓人間工學會는 3월 31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朴景洙회장(한국과학기술원교수)을 비롯한 李순요

부회장(고려대교수)과 韓상덕부회장(신발과학연구소장)을 유임시키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운전자 의 눈의 위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년의 근력추정에 관한 연구」 「시각정보의 단기기억에서 정보부하와 유지시간에 따른 인간수행도 평가」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섬유공학회

지난 4월 13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韓國纖維工學會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에 高錫元 서울대공대교수, 부회장에 李廷玟 충남대공대교수·張起柱<주>경방부회장·馬錫一인하대공대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단외에도 이사, 감사등 지난 3월24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진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평의원수를 현 70명에서 1백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제17회 학회상을 시상, 馬錫一인하대공대교수에게 학술상을, 張起柱<주>경방부사장에게 기술상을, 鄭秀鍾섬유산업연합회상무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총회후 열린 춘계학술발표회에선 日 道邨大 Takeaki Miyamoto 교수의 「Recent Developments in Novel Cellulose Derivatives」특별강연에

이어 「채상의 염색에 관한 기초적인연구」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의 텍스처가공공정에 관한 연구」등 37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이류학회

韓國衣類學會(회장 金惠敬) 금년도 제14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4월1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려 2편의특강과 8편의 학술논문발표가 있었다.

특히 학술발표회에선 서울대 이재곤박사의 「의복의 열 및 투온저항」 덕성대대 김준호박사의 「사회과학방법론에 있어서 질적방법과 양적방법」등 두편의 특별강연을 비롯 「의류생산을 위한 교육용CAD시스템 개발(조진숙/이화여대)」 「한복지의 열적특성에 관한 연구(권오경/경북대)」등 8편의 일반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화재학회

韓國火災學會(회장 金眞一)는 3월 30일 科總회관 409호에서 제11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東方電子産業(주) 崔晚炯대표이사가 「자동차재탐지설비의 非火災報와 失報에 관한 고찰」, 한국화재보험협회 梁成煥 점검과장이 「세계의 주요 防災관련기관」에 대하여 강연했다.

科總회원단체 5월중 학술행사계획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자	장 소
한국생화학회	한 병 훈	지질과 생체막연구학술대회	5. 4	서울대교수회관
한국생물공학회	김 재 형	제 2 회 생물공학국제학술대회	5. 6	서울대
대한안과학회	윤 정 우	제64회 춘계학술대회	5. 11-12	경주코오롱호텔
한국가축번식학회	이 근 상	춘계학술세미나 및 임시총회	5. 12	고려대과학도서관
한국곤충학회	박 성 호	춘계학술발표회	5. 12	인하대
한국수산학회	이 강 호	제1회 정기총회 및 춘계발표회	5. 12	부산수산대학교
한국작물학회	황 종 규	제28회 정기총회 및 춘계발표회	5. 12	제주대농과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홍 영 표	제70차 춘계학술대회	5. 12	경주콩고드호텔
대한신경과학회	명 호 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5. 12	대구프린스호텔
한국대기보전학회	노 재 식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5. 18	국립환경연구원강당
한국환경위생학회	구 성 회	제1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5. 19	서울대보건대학원
한국응용곤충학회	우 건 석	춘계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5. 19	전북대농과대학
한국부식학회	남 종 우	춘계학술발표회	5. 19	과학기술대학
한국표면공학회	백 영 현	춘계학술회의	5. 19	과학기술대학
대한전자공학회	이 상 배	제어계측, 로봇틱스 및 자동화 합동학술회의	5. 19	서울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 만 청	춘계학술대회	5. 23	서울대병원
한국유타학회	문 탁 진	제5회 유타강습회	5. 24-25	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신 동 소	제13회 국제세미나	5. 25	KOEX
한국고분자학회	송 대 원	고분자토론회	5. 25-26	도고관광호텔
한국통계학회	최 중 석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5. 26	전주대학교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이 해	창립10주년기념 춘계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5. 31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생약학회

韓國生藥學會(회장 李殷芳)는 4월12일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제3회 유용천연물질 개발심포지움을 개최, 천연물의 생리활성성분을 중심으로한 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선 박사롱변

리사가 「유용천연물성분과 물질특허」 韓龍男교수(서울대생약연구소)가 「생물활성 천연물질의 단리—毛冬靑의 항혈전성분」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표면공학회

韓國金屬表面工學會(회장 白瑩鉉)가 「韓國表面工學會」로 학회명칭을 개칭했다.

동학회가 최근 공업진흥청의 승인을 얻어 학회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표면공학기술이 금속뿐만 아니라 Ceramics와 Plastics에 적용되는등 다변화추세에 부응하여 회원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동학회는 개칭된 학회명과 함께 영문명칭도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으로 확정했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기술사회

韓國技術士會(회장 金圭泰)는 3월 27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1억7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전임 金慶植 회장에게 공로상을, 洪鍾善 금성전선(주)사장에게는 기술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확정된 을 주요사업계획으로 ▲창립 25주년기념행사 ▲기술사대회 개최 ▲기술사합격자환영회 ▲회원명부발간 ▲전국민 과학화운동지원사업 ▲기술사제도개선추진 ▲기술교류 및 연구활동 ▲기술사보수교육 실시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요업학회

韓國窯業學會(회장 張性道)는 4월 20~21 양일간 영남대학교에서 금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특별강연 9편과 1백11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총회에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에 이어 金宗熙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교수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고 전임회장인 안영필한양대 명예교수에게 공로상을, 그리고 전임임

원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포항공대 이시우교수의 「열프라스마를 이용한 세라믹의 합성」 日오사카대학의 Koichi Nihara교수의 「Design Technology of Ceramic Nanocomposites」등 9편의 특별강연과 「침전법으로 제조한 알루미늄 수산화물로 부터 AIN 분말형성」 「구산규석의 변태특성」등 모두 1백11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약제학회

韓國藥劑學會(회장 金吉洙)는 4월10일 신라호텔에서 「멀티플 유니츠제형의 개발 및 전망」이란 주제로 제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선 윤행중박사(한일약품)의 「압출, 구형화기법에 의한 구형과립의 제조 및 응용」 조지 앵 디즈니 박사(美 캔터키약대)의 「멀티플 유니츠제형의 위장관내에서의 거동」등 4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大韓結核및 호흡기학회(회장 洪永杓)는 4월12-13 양일간 서울醫大 소아병원 강의실과 가톨릭醫大강의실에서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美 Boston 대학교의 J. Brody박사가 「

Perspective of lung Growth and Repair:From Physiology to Molecular Biology」와 「Growth and Differentiaion of Alveolar Epithelial Call」를, 동교 김광철박사가 「Airway Mucus Regulation」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 전 안 내

한국환경농학회

韓國環境農學會(회장 梁桓承)는 학회사무실을 전북 전주 시 덕진동 664-14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내로 옮겼다.

전화 (0652)70-2541, 2543

한국인삼연초연구소

韓國人蔘煙草연구소 서울사무소가 중구 남대문로 4가 17-2 2로 이전했다.

전화 및 Fax : 777-1631

한국품질관리학회

韓國品質管理學會(회장 李相鎔)는 학회사무실을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7층 한국공업표준협회내로 옮겼다.

전화 7723-580, Fax 7723-324

한국영양학회

韓國營養學會(회장 蔡範錫) 사무실이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내로 이전했다.

전화 961-0262